



만덕1동의 이모저모

9월22일 우리(청소년 기자단)는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소장님과 만덕1동 만덕환경 개선사업 홍보관을 찾았다. 미리 약속을 하고 오지 않아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김수 위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김수 위원장님은 바쁜 중에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지금 만덕1동 5, 7, 8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과는 그 개념이 다르며 국가정책에 의하여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주민들이 잘 협조해주어서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향후의 계획은 2008년 12월말에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2009년 말까지 주민이주완료, 2010년 7월 착공, 2012년말 준공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녹지비율도 약 31%나 되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만덕1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만덕1동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재개발 후면 만덕1동의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곳저곳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 취재 · 사진 정나현, 정미경(만덕중학교 2학년) -



www.bsnet.or.kr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구, 사상구 복지 컨소시엄

복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아동,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각종 사회복지 문제를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자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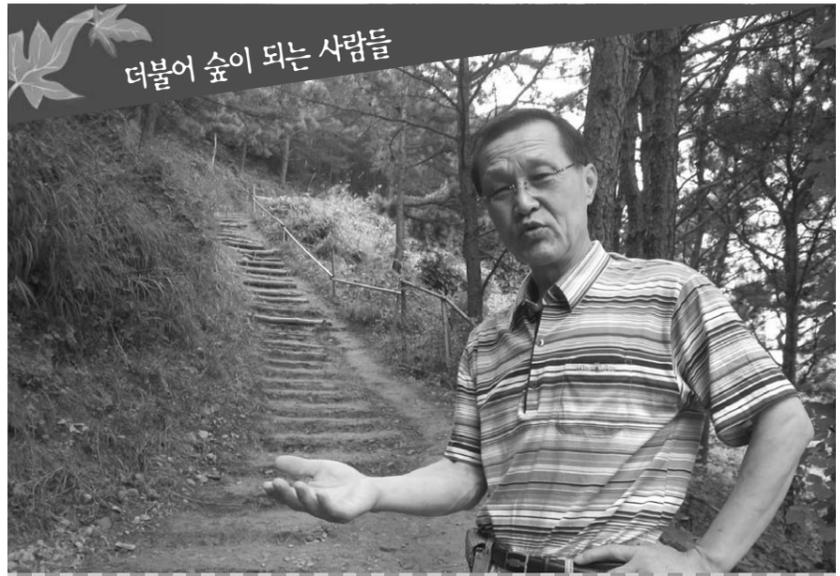
복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에서 실시한 2006 테마 기획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복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사단법인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복구, 사상구 22개 기관(부산 복구, 사상구 지역 13개 복지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산한부모가족희망센터,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북부교육청, 복구청, 사상구청, 부산일보사, 한진중공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전화연락 바랍니다.

▶대표전화 : 888-8888
▶만덕복지관 : 332-8004

후원 :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만덕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묵묵히 길을 닦으시는 '김윤중'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린코아에서 백양산 등반하는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나무계단길이 보입니다. 그 계단은 계속 이어져 백양체육공원 뒷길까지 연결되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허술하지만 하던 계단길이 조금씩 잘 정비되고 있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시계도 놓여지고, 유채꽃 밭이 꾸러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정성을 다해 길을 닦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덕사람들에서는 그 길을 닦는 주인공을 지역주민들에게 수소문하여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덕3동 그린코아에 사시는 김윤중(65세)님은 1980년대부터 만덕동에 살아오셨는데 만덕동에 숲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은 분이셨습니다.

김윤중님은 지난해 만덕2동에서 3동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시다가, 흙과 돌덩이로 뒤 덮여 있는 비탈진 등산로를 매일 2시간씩 계단식으로 다듬어 왔습니다.

비가 온 다음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등산하기에 힘들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더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노력으로 많은 분들이 비운 뒤에도 문제없이 등산할 수 있도록 멋진 등산로가 탄생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등산을 하시는 지역주민 몇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누가 했는지 알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이 길이 정돈되지 않아서 등산 할 때 힘들었는데 이제 참 좋아요" "주민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해요,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 하는데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만덕마을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들고 계신 김윤중님 참 고맙습니다.



- 취재 · 사진 김지경 -

생활글

아카시아꽃 피던 만덕 마을

만덕1동 지역주민 이은숙

초등학교 4학년 때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덕으로 이사 왔다. 어렸던 탓에 정 들었던 학교와 친구를 떠나는 아쉬움 보다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이사하게 될 집이 아파트라는 생각을 하니 설레이는 마음에 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는 기쁨은 잠시 뿐 저 멀리 언덕에는 계단식 밭과 논이 보이고 소 물고 다니는 농부아저씨가 있는 소풍냄새 나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사는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나는 이곳에서 계속 살면 시골촌놈이 될것 같은 생각에 절망적이었다. 예전 친구들에게 내가 이사 간 곳이 어떤 곳인지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랑할 말도 쏘옥 들어갔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일주일...나는 점점 만덕에 푹 빠져갔다.

아파트에 같은 학교 친구들을 알아갔고 그 친구들에게 만덕동 구석구석을 소개받았다. 우리의 활동무대는 만덕 뒷산 계곡...

아파트뒷문을 나가면 확트인 들판과 산이 이어졌고 들판에는 온통 아카시아 나무들이 향긋한 냄새 풍기며 우리를 불렀다.

아카시아나무 그늘 밑에서 산새소리, 풀벌레소리를 음악삼아 아카시아 잎 따며 좋아한다 숨어한다 윙조리며 놀기도 하고 매미잡고 고추잡자리 잡고 그러다 더우면 계곡에 들어가서 큰 돌맹이 아래 몸을 숨기고 있는 가재를 잡고 물놀이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카시아 만발하던 우리의 아지트를 갑자기 아파트를 짓는다며 불도 우저가 밀어버리고 벌거숭이 공터로 몇 년 ...

반쯤 깎여진 산과 벌거숭이 공터가 너무 흉해 보여 싫었지만 아지트를 잃은 우리는 거기서 자전거 타고 공차기 하며 또 다른 우리 나름대로 놀이 공간을 만들어갔다. 유리알보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던 계곡도 하나둘 시멘트로 메꾸어져갔다. 지금 그 자리에는 동일아파트가 들어섰다. 만덕 주거환경개선 지역도 곧 재개발 되어 지금의 흔적은 온데 간데없어질 것이다. 깨끗하고 정돈된 만덕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추억이 깃든 그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동일아파트에서 창문을 열면 내가 뛰놀던 산이 눈앞에 서있고 상큼한 바람이 분다. 크게 숨을 쉬어 들어 마셔본다. 지금은 흔적도 없는 아카시아꽃 피던 만덕을 혼자 술술 꺼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술 취한 어른들 제발 참아 주세요...”



만덕중학교 2학년 정나현

저는 만덕동에 사는 학생으로서 만덕동의 문제점에 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덕동의 가장 큰 문제는 길거리에서 항상 보는 취객들의 길거리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하면 꼭 길거리에서 이유 없는 싸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어른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싸움을 벌이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한창 꿈이 자라고 있는 순진한 어린 아이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현재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다소 폭력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길거리싸움, 폭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길거리싸움과 폭력!

조금만 노력해서 줄여주세요. 그게 자신을 위해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 술을 마시고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지 말아주세요. 길거리 악취가 심합니다. 남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는 것은 취객이라도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집주인이라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자기집 앞에 누가 소변을 본다고 생각해 본다면 역시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점점 더 악화되는 만덕동. 조금씩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덕동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평화로운 만덕동 이름 그대로 만가지 덕이 있는 만덕동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만 모두 노력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사다리 운동 소식

경철이네가 이사 갈 집을 찾고 있습니다.

경철(가명 초3)이네 식구는 모두 7명 대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 3명 그리고 이제 두 돌이 채 못 된 동생까지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큰 위기에 있습니다.

집이 없는 경철이네는 2년 전 우리 마을에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집을 얻을 형편이 되지 못해 여관에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 노동을 하고 계시지만, 벌이가 좋지 못하고 어머니도 일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아이들의 건강조차 좋지 못합니다.

이 가족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철이네를 도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하기도 하고,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고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만나 아이들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경철이네 가정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만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한결 같은 대답은 주거 환경을 바꾸지 않고 다른 개입만으로는 이 가족이 가진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 하루빨리 주거이전을 도와 주려고 합니다. 다행히 경철이네는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전세금 대출 사업에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5천만원까지 대출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제 경철이네가 이사할 집만 찾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사다리 운동 후원 감사합니다. - 이영수, 이필남, 권기형, 곽관용, 신종국, 신은희, 곽진영, 강기원, 류은경, 김선례, 온유조경, 등마루산악회, 김경화, 이승훈, 김자경

* 희망의 사다리 운동 후원금은 우리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입니다.

♥ 희망의사다리운동 후원계좌 부산은행 227-01-001469-9(예금주 만덕복지관)

♥ 도움이 필요할 땐 연락해주세요. ☎ 332-8004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준 사람들..

해동검도 정양욱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린코아 사거리에서 덕천동 쪽으로 길을 오르다 보면 해동 검도장이 있습니다. 이 검도 장에서는 우리 마을 어린이들 3명에게 무상으로 검도 수업을 허락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도 운동을 하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성실한 아이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프랜드치과(구 참사랑치과) 전희만 원장님 감사합니다.

벽산 라인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만덕동 프랜드 치과(원장 전희만)는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예쁜 여학생에게 치과 치료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지만 그동안 아픈 치아를 가지고 공부하느라 집중하기에 힘이 들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돈이 드는 치과치료 특성 때문에 학생과 엄마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만덕동 프랜드 치과에서 이 학생에게 필요한 치과치료를 지원해 주시길 된 것입니다. 소문 내지 말라고 하시며 치료해주고 계시지만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홀로사는 마을 어르신께 중고 TV를 선물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무료한 밤 할머니의 유일한 즐거움은 작은 TV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일전부터 텔레비전이 붉게 나오고 화면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된 물건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두고 잠재워두신 컬러 텔레비전이 있으시면 만덕사람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훈훈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하나씩 선물을 나눠 보면 어떨까요?” 하고 말씀드렸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더욱 훈훈한 추석이었습니다.



소나무(청소년자원봉사) - 선물 세트(10set) 박은희 - 치약(2set) 옥 진(유송) - 배(1box) KT&G복지재단 - 백미 20kg(50포) 소세지(자원봉사) - 명절음식(5세대) 이우진 - 현금(5만원) 이영문 - 양말(10set) 북부산새마을금고 - 백미 10kg(13포) - 현금 70만원	손성권(안경매니아) - 학생안경(3개) 송치명 - 참치(1set) 박원하 - 해바라기유(4set) KT북부산 - 성인기저귀(40set) 전희만(프랜차이즈) - 치과치료(1명) 홍성민(부성로지스) - 한과(1set) 전선미어린이 - 잠옷(3벌) 부산은행 - 전통시장상품권(200장)	김자경 - 양말(6set) 신진숙 - 포도씨유(1set) 이성호 - 양말(1set) 이승훈 - 양말(1set), 술(1set) 김정미 - 참치(4set) 와스쿨 어머니 모임 - 양말(10set) 박영란 - 양말(2set) 정양욱(해동검도) - 무료 수강(4명)
--	---	--

마을에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 중학교 1학년 소나무 아이들, 서툰 솜씨지만 손수 만든 명절음식을 함께 나누는 대학생들, 예쁜 어린이 잠옷, 양말과 참치 세트...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고르고 골라 선물한 따뜻한 이웃들...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만들어 낸 작은 나눔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앞으로도 만덕복지관과 함께 더욱 살맛나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아동 국회 초청 서울나들이

2008년 8월28일~8월29일 양일간 부산 영도구 동삼동 웅달샘 지역아동센터와 부산 북구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한나라당 강명순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서울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게 되었다. 센터의 아이들은 오랜만의 서울 나들이에 첫날 서울랜드를 놀이동산을 시작으로 남산타워구경, 저녁에는 청계천을 구경하였다. 29일날 이른 아침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 국회 여기저기를 초청해 주신 강명순의원님의 안내로 구경할 수 있었다. 오전9시에는 김형오 국회의장님이 파격적으로 부산에서 아동들이 국회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주셨고 같이 기념촬영도 해 주셨다. 더 더욱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특별히 아이들에게 보여주셨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커라고 하시며 선물과 일일이 손을 잡아주셨다. 외부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이번 국회초청방문은 그 의미가 더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이번 국회초청나들이는 '빈곤한 아이들의 대모'인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강명순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경비는 강성규·원희목·장광근·배영식 국회의원님들께서 부담해 주셨다. 이 지면을 빌어 애써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승리의 V자 포즈를 잡고 계신 김형오 국회의장

* * 만덕사람들 기획 회의 * *

만덕사람들 신문 발간을 위한 기획회의가 지난 9월 19일 만덕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만덕동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논의하고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로 성숙되면 좋을지, 만덕사람들이라는 마을 신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신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함께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가한 사람들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김기만 소장, 주우전 그린코아 주민, 김자경 만덕3동 거주, 이승훈 만덕복지관 직원, 정미경(만덕중 2학년), 정나현(만덕중 2학년), 이은숙(만덕1동 거주), 이미애 이상 10명



만덕사람들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덕 1, 2, 3동 사무소,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강양금 치과, 부산은행 신만덕 지점, 만덕약국
만덕사람들을 비치하고 싶은 기관이나 상점은 연락주세요. ☎ 332-8004

「나눔과 상생」의 행복복구 만들기

제2회미래복지특화박람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나눔과 상생」의 마을로 행복복구를 만들기 위해 제2회 미래복지특화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기간** 2008. 10. 7(화)~10. 9(목)
- 장 소** 문빙상 센터(공연장 및 전시장)
- 주요내용**
 - ▶ 기념행사 - 일 시 : 10. 8(수) 14:00~16:00
- 장 소 :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 ▶ 학술행사 - 일 시 : 10. 7(화) 15:00~17:00
- 장 소 : 우리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미래복지 모델제시"
 - ▶ 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
- 일 시 : 10. 8(수)~10. 9(목) 10:00~7:00
- 장 소 : 북구문화빙상 센터 전시장

2008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 사업추진의 취지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북구 뿐만 아니라 전국 2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여하고 시행하는 전국적인 조사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보건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건강하고 살기 좋은 우리지역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 사업추진의 근거 : 지역보건법 제 2, 3, 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 ▶ 조사기간 : 2008년 9월~11월(3개월)
- ▶ 조사대상 : 북구 조사대상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815명
- ▶ 조사대상가구 선정방법 : 모든 주민을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계적 규칙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조사대상을 선출 선출된 가구는 주변의 다른 가구를 대표함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조사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전담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시행.
- ▶ 조사항목 : 질병이환, 사고중독, 활동제한, 삶의 질, 의료이용, 건강행태(흡연,음주,운동 등)와 관련된 질문 400문항
- ▶ 예상소요시간 : 1인당 약 45분